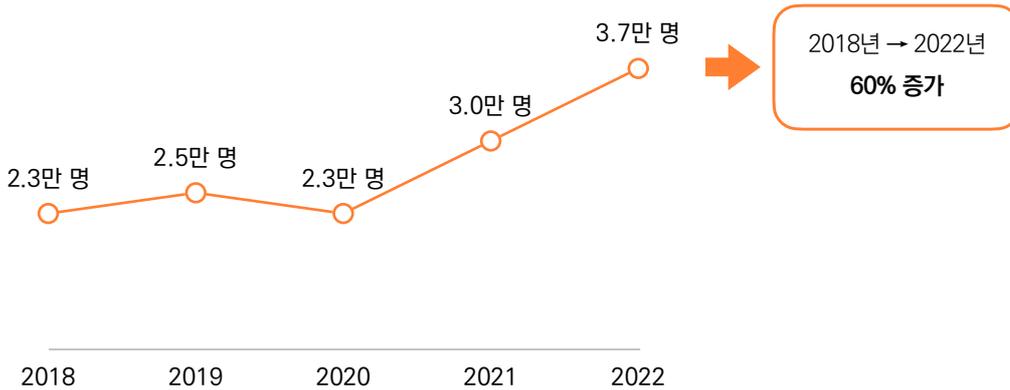




최근 5년간 아동·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60% 증가!

- ▶ 최근 아동·청소년 우울증 증가가 심상치 않다. ‘2018~2022년 아동·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’(국민건강보험공단/김원이의원실) 자료에 따르면 만 6~17세 아동·청소년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2.3만 명에서 2022년 3.7만 명으로 60%나 급증했다.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학교, 지역사회, 교회가 관심을 갖고, 상담/관리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.

[그림] 아동·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(만 6~17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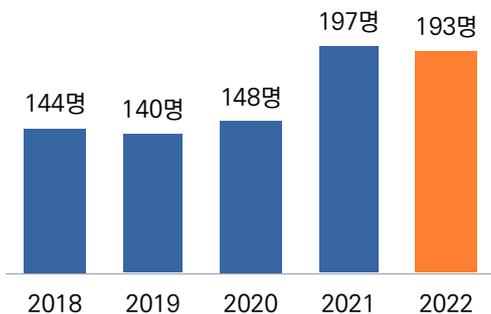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연합뉴스, ‘어린이 우울증 5년 새 갑절로...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’ 기사 참조, 2023.09.07.
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907054400530?input=1195m>)

◎ 청소년 자살 원인, ‘가정 문제’가 가장 많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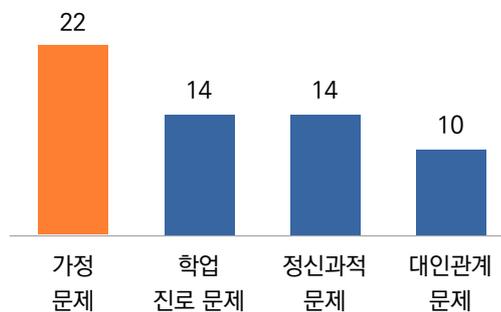
- ▶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초·중·고생 기준 2018년 144명에서 2022년 193명으로 늘었고, 5년(2018~2022년)을 통틀면 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5년간 초·중·고등 학생의 자살 원인을 보면 ‘가족갈등 등’ 가정 문제가 22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학업 진로 문제’, ‘정신과적 문제’, ‘대인관계 문제’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초·중·고등 학생 자살 현황



[그림] 초·중·고등 학생 자살 원인**

(2018~2022, 원인 미상/기타 제외 상위 4위, %)



*자료 출처 : 연합뉴스, ‘어린이 우울증 5년새 갑절로...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’ 기사 참조, 2023.09.07.
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907054400530?input=1195m>)

**가정문제 : 가족갈등, 부적절한 양육, 부모에 의한 학대 등
정신과적문제 : 우울증, 조울, 공황장애, 조현병 등 정신질환
대인관계 문제 : 교우 및 이성 관계, 학교폭력 등